

우리들의 모습

가을 운동회 풋살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9월 21일(주일) 송현동성당과 풋살장에서 예비신학생 9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16명의 예비신학생들과 신학생들이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풋살을 즐겼습니다. 서로 몸을 부대끼고 함께 땀흘리며, 예비신학생들간의 형제애와 돈독함이 한층 더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느님을 향하여 드리는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저녁기도를 통해, 감사함을 기도 안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몸이 아파요. 기도해주세요!

예신생 친구들도 몸이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나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몸 뿐만 아니라 마음도 괴롭고, 어떤 때는 하느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해 하느님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신자가 큰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병자성사'를 하는 거지요. 이 성사는 신부님과 신자들이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아픈 환자에게 성유(聖油)를 바르는 예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아픈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항상 이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주위 가족 친지들과 신자들이 이 환자를 위해 늘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지요. 병자 스스로는 병자성사를 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위 신자들이 성당에 알려서 병자성사를 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아플 때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청하지요. 아픈 이들은 바로 이 병자성사를 통해 더욱 든든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설령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지라도, 특별한 힘을 발휘할 것이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른 성사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주님께서 아픈 이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10월 4일 프란치스코
예비신학생 - 유제연 (점촌동, 중3)

기억해요!

1. 2027 서울 WYD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 축제

- 일 시 : 10월 12일(주일) 10:00 - 17:30
(발대식 14:00, 발대미사 14:30)
- 장 소 : 안동 탈춤공연장(안동시 육사로 239)
- 대 상 : 초중고 주일학교 학생, 본당 청년
(젊은 부부 포함)



2025년 10월

예비신학생 편지



〈예신 9월 모임 - 가을 운동회 풋살〉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예신생과 나누는 'Joungul'

- 몰로카이의 다미아노 신부 (1840~1889) -

예신 친구들, 혹시 '한센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도 가끔 나오는 병인데,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했던 피부병이고 예수님께서 치유해주시기도 했지요. 이 병과 관련된 유명한 신부님이 있어요. 바로 다미아노 신부님입니다.

1840년 벨기에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신부님은 '예수와 성모의 성심 수도회'에 들어갔고, 1864년 하와이에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와이는 외지인들이 퍼뜨린 새로운 질병 때문에 많은 원주민들이 죽어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바로 한센병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이 환자들을 몰로카이 섬에 격리 수용하였고, 그 섬은 점점 죽음의 섬으로 변하면서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게 된 다미아노 신부님은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기를 청하였고, 1873년 섬으로 들어가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손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한 다미아노 신부님도 결국 1884년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다미아노 신부님은 한센병 치유를 위해 다양한 의학적 실험에 자신을 맡기며, 치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환자들을 사랑했던 신부님은 1889년 4월 15일 한센병 환자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신학생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예비 신학생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제가 해군에 입대한 지도 벌써 다섯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선 환경과 규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공동체 생활의 의미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매일 반복되는 일정과 규율 안에서 생활하지만,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듣게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신학생의 길 역시 매일의 단순하고 꾸준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이지요. 반복되는 기도와 공부, 공동체 생활 안에서 성실히 자신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귀하고 은혜로운 길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하기 전부터 이미 작은 일에 충실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의 작은 파도 하나에도, 동료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예비 신학생 여러분도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 담대히 응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참된 목자를 꿈꾸시길 기도합니다. 저 또한 군 생활 가운데 저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며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바다의 푸른 수평선을 바라볼 때마다, 저 멀리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나 함께 기뻐할 날을 기다립니다.

모전동 본당, 군복무
심민성 디오니시오 신학생

난 도 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다. 어서 너희들한테 '앞'으로 돌려봐라.
바둑 4:19 NANDO

www.nando1004.net